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 공자가 한 말이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배움은 무릇 즐거워야 한다. 과연 현실은 그럴까?

아이 상황과 특성에 따라, 아이 ‘속도’에 맞는, 아이 ‘스스로 선택하는’ 배움이면 좋겠지만, 부모는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의 학습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학습할지 살펴볼 여유도 없이, 아이는 자기 능력보다 과한 학습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치이다 보면 흥미를 잃고 수동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가 대학 졸업 후에도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와도 연결된다.

배움은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특화하고 이직과 전업이 일상화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무엇보다 ‘생존에 대한 자기 주도 능력’을 갖추어 100세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즐겁게 배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의 특성은 어떨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무엇을 배워보고 싶은지 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특성에 맞게 학습 전략과 실천 계획을 스스로 짜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자신에게 맞게 배움을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며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거울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살펴 보듯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배움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신은 ‘불완전’하다는 점, 이러한 ‘부족’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겠다. 성인이 되어도 자기성찰을 통해 인생과 사회를 바르게 바라보고자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인생관과 사회관이 형성된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자신의 부족을 직시하지 못하고 ‘다 안다’라는 착각, ‘내 생각만 옳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면, 자신도 모르게 아집과 오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며 부딪치는 문제는 뚜렷한 답이 없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지혜로운 해법은 결국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살다 보면 자기 사고와 경험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사고나 ‘혁신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도 많은데, ‘배움’을 가까이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 속도에 맞게 배움을 스스로 실천하는 경험을 해보게 할 필요가 있다. 시행착오도 실수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넉넉하게 바라보며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돼야 한다. 아이는 결국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부모 욕심을 앞세우기 보다, 아이가 ‘즐기면서’ 배우도록 옆에서 돕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닐까?

사설

방역도 경제도 ‘실종’, 전열 재정비하라

제주가 코로나19 감염자 속출에 다 경제불황도 계속돼 총체적 위기다. 코로나19 감염자는 감소세지만 이어지고, 지역경제도 악화일로라 일상회복 기대감을 지운 지 오래다. 도정이 방역과 경제살리기라는 ‘두마리 토끼’ 전략을 새롭게 할 때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아직도 불안하다. 월 기준 작년 12월 930명에서 올 1월 18일 기준 255명으로 감소세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현재 누적 40명으로 늘었고, 코로나19 확산도 여전하다. 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호소만 치중하면서 현장점검·단속에 소홀하다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말연시 터진 집단감염은 현장방역 하점의 사례다. 지역경제 살리기 전략 부재도 문제다. 제주경제가 2020년 최악의 역성장(-6.6%)을 한 이

후 작년 관광업 회복에 3%대, 올해 4% 안팎 성장 전망이지만 도민 체감경기를 최악이다. 물가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실업자 취업 계층 증가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은 끝이 없다. 제주형 방역체계 수립과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의 ‘개점휴업’은 방역과 경제회생 정책 ‘실종’의 한 단면이다. 출범 석달간 전체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오죽하면 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가 1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특별성명을 냈을까.

도가 방역과 민생경제 관련 새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거기에 대응 전열 재정비와 현장에 맞는 시책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투자이민제 개선 아닌 폐기 검토할 때

제주도가 2010년 2월 외자유치 유인책으로 도입한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그동안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 반면 영주권을 획득한 후 부동산을 되파는 이른바 ‘먹튀’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여년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견인했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들이 제주의 환경과 관광·교육 측면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제주도 의무 거주 기간 부여 및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바꾸고 투자자 국적도 중국 일련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를 유치하는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잖은 도움이 됐다. 지금은 시행 초기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투자이민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외국자본 유치 등 성과를 거뒀지만 부동산 과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를 검토할 때라고 본다.

편집국 25시

방역패스와 디테일



김도영  
행정사회부 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 ‘기생충’으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별명은 ‘봉테일’이다. 봉준호와 디테일(detail)이 합쳐진 말로, 봉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는 장면 하나와 대사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빈틈없이 꼼꼼하다는 이유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인물에 대한 설정과 그 인물이 살아가는 배경,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디테일이 모여 영화를 완성시키고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폐했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이 요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서울 지역만 적용했다가 며칠 만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오락가락하는 방역패스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역패스·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만났던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디테일의 아쉬움’이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할 의지는 있지만 ‘디테일’한 내용 없이 일괄 적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는 식당과 마스크를 쓰고 말할 일이 없는 독서실은 그 상황이 다를 테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아야 하는 정부의 고충도 알지만 빈틈없이 꼼꼼한 대응책과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제주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최근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때론 발표되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제주특별자치도라면 지역 상황에 맞는 J-방역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디테일의 차이가 감동의 차이를 만든다.

뉴스-in

“고병원성 AI 지역 경제 악영향 차단 최선”

고영권 부지사 방역 현장 방문

새로 시행하는 제도 홍보를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현장을 찾아 방역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방역 만전을 주문. 고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현장을 방문해 “고병원성 AI와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차량 출입 통제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이어 “제주지역은 가금농장은 물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병원성 AI는 도내 해안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철새도래지 차량출입통제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 고대로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되는 등 새롭게 달린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안동우 시장이 19일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안 시장은 이날 오전 각 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운전자는 물론 렌트카 회사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제도 운영의 목적이 위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렌트카 등 차종별 위반사례들을 정확히 분석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부 고

강영범(대림산업) 아버지 곡산강공만호(前 서귀포경찰서·향년 69세)께서 서기 2022년 1월 19일 10시 31분경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2년 1월 20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2년 1월 21일(금요일) 낮 12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장 지: 양지공원→관음사

부인 고인자

아들 강영범 며느리 소미진

딸 강유진 사위 현승엽

※ 연락처 : 고인자 010-3119-1981  
강영범 010-4942-1902  
강유진 010-4655-190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정희(국가유공자·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월 20일

아들 현창부 며느리 신영

창흠 최지연

창민 오성림

딸 현숙 사위 김호기

이숙 고승화

희순 고정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원식(前 성산교 교장·향년 75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월 20일

아들 강재석 며느리 김미정  
딸 강재희 사위 신동호  
강재영 정재욱  
강재욱 김덕훈

상속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임영근(1948. 12. 29생)  
•최후주소 : 제주시 동문로6길 14, 201호(일도일동, 남안아파트)  
상기자는 2021년 11월 2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1월 12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50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 2. 연 락 처 : 제주시 동문로6길 14, 201호(일도일동, 남안아파트)

2022년 1월 2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한귀래, 임두봉, 임수빈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를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3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글게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